

“손 맞잡고 ‘장애의 벽’ 허물자”

해동고 파라미타, 장애우와 함께 통도사 순례 행사



5월 6일 장애우들과 함께 통도사 순례에 나선 해동고 파라미타 학생들.

“처음에는 나와 다른 모습에 겁이 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분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이상운·18·해동고2년).”

“새로 산 운동화와 제일 좋아

통도사로 함께 성지순례를 나섰다.

이번 순례에서는 해동고 이사장 성파 스님(통도사 서운암)과 안정수 교법사가 인솔하는 23명의 해동고 파라미타 학생들이 몸이 불편한 30~40대 장애우와 짝을 이뤄 손을 잡고 함께 통도사를 돌아왔다.

이어 일행은 서운암에 올라 여러 들꽃이 만개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봄의 정취에 젖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소 ‘꽃 한 포기 가 곧 부처’라고 말해 온 성파 스님은 “우리 학생들이 자부리 시간을 쪼개어 이렇게 좋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참 대견하다”며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참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지현 기자**

부처님과 함께한 ‘어린이날’

선운사 템플스테이 등 전북지역 행사 풍성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 5월 3~4일 선운사에서 연 어린이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관계자와 어린이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잔치가 전북 전주·정읍·고창에서 동시에 열렸다. 부처님오신날 전북불교총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는 5월 4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초등학생 및 가족 등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북 어린

이 큰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이 이어 백일장, 사생대회, 민속놀이, 다양한 문화체험,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순으로 펼쳐졌다.

이에 앞서 정읍불교청년회(회장 최민철)는 5월 3일 정읍 충무공원에서 제11회 ‘자비나눔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300여명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는 ‘이웃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이 함께하는 세상’ ‘불상 등 불교 상징물 표현하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궁)은 5월 3~4일, 선운사 내 템플스테이관에서 고창지역 어린이 43명과 함께 ‘산사에서 보내는 1박 2일’ 캠프를 개최했다. 아침산행, 연꽃등 만들기, 단주 제기, 성보박물관 견학, 부모님께 편지쓰기, 서원지 태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 거리를 안겨줬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운하반대’ 순례단 환영법회

청주청원원조계종주지협 등

청주청원원조계종주지협(회장 설곡) 주관으로 법주사(주지 노현)와 운하백지화총복도민행동(상임대표 강태재)이 청주 무심천 소나무공원 특설무대에서 종교인 100일 순례단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설곡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교인들이 대운하 반대를 위해 100일간 도보로 순례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뜻이다”며 “남은 17일까지 지금처럼 건강하게 완주해 국민의 뜻을 정부에 알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교인 100일 순례단 단원들을 비롯해 BBS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법주사 총무국장 현우 스님과 강태재 운하백지화총복도민행동 상임대표, 홍재형, 노영민, 오제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천왕사 대웅전 낙성법회

제주 한라산 천왕사는 5월 1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 법사로 관음사 원종 스님과 각 종단 원로스님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 및 봉불법회 법회를 거행했다. **조동섭 기자**

천왕사 대웅전은 회주 월서 스님의 원력으로 2006년 8월 불사를 시작해 1층 수행관 127평, 2층 대웅전 98평으로 지어졌으며 주불은 석가모니불이고 좌우에 관음, 지장양대 보살을 모셨으며 천 분의 원불을 함께 조성했다. **조동섭 기자**

청주 관음사 이색 그림展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6일부터 12일까지 관음사 전불보전에서 이색그림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회에는 비천상, 십이지신상, 연꽃 등 전통적인 소재를 주제로 기와에 그린 그림을 50여점을 선보였다. 기와 그림은 단청불화기법으로 그려져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다.

6일 개막식에는 청주청원원불교연합회 회장 각의, 청주청원원조계종주지협(회장 설곡, 관음사 주지 현진, 공근17비행장 호국 영축사 상국, 석문사 주지 해전 스님)과 기와그림 작가 이희영, 단청장 권현규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군산 흥천사서 경로잔치

대한불교보문종 흥천사(주지 지환, 주지 법회)는 5월 3일 흥천사 앞광장에서 제10회 자비의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관음사 재근 스님을 비롯해 전주 정혜사 혜월, 백운사 지항 스님과 강봉근 국회의원, 안근 군산불교신도회장 등 150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지환 스님은 “<부모는 중경>에 실려진 부모님 은혜를 마음에 담아 신도들과 함께 정성스러운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달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화합 행사로 포교 확대를”

인천 불교계 ‘불교지도자대법회·전통문화축제’ 개최로 새도약

인천불교계가 성장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인천 불교계는 대형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며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 하는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웃종교에 비해 다소 미약했던 인천 지역의 불교세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 이하 인천불교련)는 5월 6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불기 2522년 부처님오신날 불교지도자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1부 식전행사, 2부 대법회, 3부 중구 문화사절단 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인천불교련 명예회장 해운, 고문법륜, 회장 대은, 부회장 경원 스님과 안상수 인천시장, 박창규 인천시의회의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조진형(헌나라)·송영길(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해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현실사회 속에서 실천하는데



5월 3일 인천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린 인천불교범종단불교총회(왼쪽)와 6일 라마다호텔에서 봉행된 불교지도자대법회.



소홀했음을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이타행을 통해 정법의 종소리로서 세계를 정토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은 스님은 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는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는 공업종생(共業衆生)이기에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생활 속에서 참회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 말했다.

이어 안상수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자리와 함께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정진을 현실사회 속에서 실천하는데

게임의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기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천의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천불교범종단불교총회(위원장 마담)와 불교대법회를 인천종합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전부터 경판사경체현, 합장주 만들기, 법고공연 등 문화행사와 불교방송 공개방송 등으로 하루 종일 축제를 연 불교총회는 오후 5시 불교대법회에 이

어 제등행렬을 펼쳤다.

불교대법회에는 불교위 고문 지하 스님(조계종 前중앙총회의장)과 화엄종 총무원장 화음 스님, 황룡사주지 무연 스님 등 지역 스님과 문병호 이화재 구분철 국회의원 등 지역인사와 불자들이 대거 동참했다. 불교위 홍보분과위원장을 맡은 화음 스님은 “인천 지역의 불교 열기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고 관련 행사도 내실과 다양성을 보태고 있어 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이 불교계의 강화와 포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태·김성우 기자**

불교 장애 복지리더, 승가원

부처님 오신날 축

부처님 오신날, 불자들의 소망을 담아 밝히는 연등공양. 올 해에는 승가원에도 연등을 밝혀주세요.

자비나눔등

불자들의 소원과 장애가족의 희망을 함께 들어주는 연등!

분홍연등의 주인공 김민하 아동
(10세, 지적장애아)

구강근육이 발달하지 못해 가사없는 노래를 부를 수 밖에 없는 인하. 인하가 언어치료를 받고 또박또박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비나눔등 신청 승가원 법안사무국 02) 928-108 특별연등 (부처님연단 한정) : 개인 10만원, 가족 20만원
1년등 : 개인 5만원, 가족 10만원 1일등 : 개인 1만원, 가족 3만원

• 자비나눔등 신청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가원 홈페이지 사이버법당에 들어오시면 불자들의 연등 위치를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승가원 www.sgwon.or.kr

진공청소 물걸레청소 구석청소 마이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에카트르닉스 NAVER